



기습 눈보라 헤치고...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진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를 지나는 시민들이 물이치는 눈보라 사이로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대 의정 활동 들여다보니

법안발의 대부분 실적쌓기용

17대 비해 대표발의 건수 2배 이상 늘고 본회의 원안 가결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광주·전남지역의 현역(18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적은 '속 빈 강정'이었다. 17대 때보다 대표발의 건수는 급증한 반면, 가결 비율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5일 광주일보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대표발의 현황자료'(2008년 5월 30일~2012년 2월 2일)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의원 20명이 지난 4년간 대표 발의한 건수는 모두 811건이었다. <표 참조>

이는 17대 대표 발의 건수 38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면, 18대 때 폐기·부결·철회 처리된 것을 제외한 원안가결·대안반영 등 실제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된 비율은 24.7%(200건)으로 17대 국회 50.5%(194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안가결·대안반영에 폐기·부결·철회까지 포함한 18대 전체 처리비율은 35.5%(288건)로 조사됐다.

이 같이 18대 국회 들어 17대 때보다 대표 발의 건수는 급증한 반면 원안가결 처리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18

대 총선 공천심사때부터 발의 법안 건수와 본회의 출석률 등 의정활동 점수를 반영하면서 의원들이 입법 성적을 의식해 질 보다는 양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지역 의원 개인별(원안가결·대안반영 처리비율 기준)로 보면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 32건 중 21건(65.6%)을 처리해 가장 높았다.

반면, 박주선·강기정 의원은 각각 27건·4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2건(7.4%)·3건(6.8%)을 처리, 하위권을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최인기 의원이 30건의 법안 중 15건(50%)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통합당 소속 의원 가운데 유선호 의원은 47건 중 9건(19.1%)을 처리해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4·2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통합진보당 김성동 의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대표 발의 23건 중 3건(13.0%)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20명 중 6명은 광주·전남 평균인 24.7%에도 못 미쳤다.

현역 의원들의 18대 국회 출석률(본회의·상임위)은 평균 84.7%인 것

■제18대 국회 광주·전남 의원 법안발의 및 처리 비율

◇ 광주 (단위:건)					
의원	발의 건수	가결+대안반영	폐기	철회	미처리(계류)
이용섭	32	21(65.6%)	2	0	9
김동철	61	24(39.3%)	4	0	33
김영진	42	15(35.7%)	0	1	26
김재균	67	20(29.8%)	2	0	45
조영택	48	7(14.6%)	2	0	39
정병만	45	5(11.1%)	0	0	40
박주선	27	2(7.4%)	2	0	23
강기정	44	3(6.8%)	2	0	39

◇ 전남 (단위:건)					
의원	발의 건수	가결+대안반영	폐기	철회	미처리(계류)
최인기	30	15(50.0%)	1	1	13
김홍식	44	21(47.7%)	0	0	23
이운석	23	9(39.1%)	1	0	13
우윤근	51	19(37.3%)	1	2	29
김성곤	42	15(35.7%)	4	0	23
박지원	12	4(33.3%)	0	1	7
박상원	3	1(33.3%)	0	0	2
주승용	78	25(32.1%)	1	0	52
김영록	53	16(30.2%)	4	0	33
이낙연	39	13(23.1%)	1	0	25
유선호	47	9(19.1%)	6	1	31
김성동	23	3(13.0%)	2	0	18

(자료: 국회의원정보시스템 참여연대)
* 가결은 대표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된 것을, 대안반영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일할 경우 상임위 제안으로 이를 함께 반영하고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 전체 처리비율은 가결·대안반영·폐기·철회 등을 포함하지만, 이 표에서는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가결+대안반영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장병관 의원과 김성동 의원은 각각 2010년 7월 28일, 2011년 4월 2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당선 이후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삼았다.

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의원이 84.7%로 90.3%를 기록한 전남지역 의원들보다 5.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95.0%를 기록한 유선호 의원, 가장 낮은 의원은 60.9%인 김재균 의원

으로 조사됐다. 평균 이하의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김재균 의원을 포함해 이용섭(83.7%)·장병관(81.5%)·강기정(79.3%)·박주선(67.3%) 등 5명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터치패드 원천기술을 보유한 솔렌시스(주)가 자금난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광산업집적화단지 내에 있는 솔렌시스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채 직원 2명만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솔렌시스는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말부터 공장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솔렌시스가 자금난으로 최근 공장 가동을

광주첨단산단 솔렌시스 가동 중단

터치패드 원천기술 보유...자금난 가중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유동 자금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터치패드 원천기술을 보유한만큼 공장이 빠른 시일 내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솔렌시스는 지난 2010년 12월 110억 원을 투자해 첨단산단 내 광산업집적화단지 5131㎡ 부지에 3172㎡ 규

모의 공장을 준공, 스마트폰의 터치패드 센서 모듈과 패널을 월 50만개 생산할 계획이었다. 시제품 생산을 마쳐 양산을 앞두고 있었다.

솔렌시스는 또한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정전용량방식(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전류를 인식 작동하는 기술)을 통해 터치패널을 개발

한 엔지니어와 국내 반도체 제조기술을 접목해 생산수율 90% 이상의 성공적인 제조기술을 확보해 기대를 받았다. 최근에는 밴쿠버에서 열린 해외기업설명회에서 캐나다 투자펀드와 EU 사모펀드로 구성된 해외투자기관으로부터 터치패드의 원천기술을 인정받아 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월 대설...광주·전남 11일까지 강추위

광주·전남지역은 11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졌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현재 광주지역에 7.9cm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영광 7.5cm, 담양 3.4cm, 장성 3cm의 적

설량을 보였다. 특히 광주·담양·장성 등에는 8일 오후 4시 전후로 대설주의보가 내렸다. 기상청은 또 광주·전남 지역은 9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2도~5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1일까지 평년(최저기온 영하 6도~영상 1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12일부터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13일에는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한 차례 내리겠으며, 그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김정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총인시설' 심사위원 15명 중 4명

“입찰 업체와 사전접촉 했다”

1000억원대 총인재감시시설 설계심사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 일부가 시공사 선정 전에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들과 사전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심사위원들은 사무실로 찾아온 업체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접촉 사실을 분과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관련기사 6면>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설계심사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없는 소위원장 1명, 광주시 기술직 공무원 9명, 광주대·목포대·전남대·조선대·호남대 관련 학과 교수 등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일보가 이들을 대상으로 업체 접촉 및 금품수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광주시 기술직 공무원 4명이 사무실로 찾아온 업체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나머지는 접촉 사실이 없거나 검찰이 수사중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설계심사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에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제한', '금전의 차용금지 등',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등을 정해두고 있으며, 심사위원의 업체 관계자들과의 사전 접촉은 내부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심사위원이 업체 관계자와 만날 경우 분과위원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편히 만나자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심사는 문서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며 "사전 접촉을 한 경우는 분과위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 아무도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의 총인재감시시설 비리 사건 수사는 시공사인 대림산업 운모 상무를 구속한 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금품 전달자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들이 전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비물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는데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은 유임시켜 수사를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중통합당 [공암동, 화정3·4동, 서창동, 금호1·2동, 상무2동]

김성숙후원회

서구 주민의 더 행복한 내일!

● 학 렳
보성초등학교 졸업 광주대학교 졸업
보성여자중학교 졸업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광주여고 22회 졸업

● 경 렳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제4대)
민중통합당 광주시당 상무위원(전)
민중통합당 중앙당 다문화가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YMCA 이사(전)
국제와이즈맨 한국남부지구 광주서지부장(전)
광주중, 광덕고, 전남고 자모회장(전)
국제로터리 3710지구 금당로터리 회장(전)
(사)한국간호교육연구회 선정 광주·전남 교육공헌대상(2008)
영주동성당 사목회 총무(전)
순화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광주전남본부장(전)

후원계좌
• 농협 : 301-0099-3221-81 (예금주:김성숙후원회)
• 광주은행 : 141-107-329110 (예금주:김성숙후원회)

*이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

후원방법
• 김성숙 블로그(http://blog.naver.com/rosekim8071)에서 후원회 가입 및 후원가능
• 직접 김성숙 후원회 예금계좌로 입금 가능.

후원안내
• 개인만 후원이 가능하며 법인·단체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 후원금액은 각종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아닌 분도 후원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은 연간 총 500만원 한도내에서 후원이 가능합니다.

김성숙후원회 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06-2 702호 후원회장: **천 해 창**
Tel. 062-653-1570 (국제와이즈맨한국남부지구차기총재) @kimsstar
www.fb.com/kss0411